



인 사

▲ 해양수산부

- 부이사관 승진
  - 어촌양식정책과장 신현석(9.4)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송명달(9.17)

▲ 한국어촌어항협회

- 어항본부장 이상기(9.2)

선 명	기간	지 역(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1~14	원산도, 효자도, 오천	백남춘	011-247-5592
어항 902호	7~26	수품, 벽파, 쉬미, 서망	이일구	010-7175-5590
어항 903호	7~24	녹동, 용동	조동식	011-230-5591
어항 904호	16~30	득암, 회진, 장용, 해동	황원배	011-232-5596
어항 905호	2~13	신수, 맥전포, 남포, 삼덕	하용만	011-247-5593
어항 906호	1~7	대보	김성훈	011-247-5594
어항 907호	10~23	금진, 강릉, 사천진	최일선	011-243-5597
크린오션호	1~10	자월, 진리, 덕적	김용익	011-243-5590
크린오션2호	1~13	미조, 노량	박주종	010-6393-5596

**살아 생전에 꼭 가봐야 할 자전거 여행 52코스**

제 목 자전거를 따라 떠나는 우리나라 해안여행  
 가 격 25,000원  
 저 자 농림수산식품부·한국어촌어항협회  
 펴낸날 2010년 5월 10일  
 판 형 4×6배판 변형(188×230) | 울컬러  
 분 량 424쪽  
 분 야 국내도서 > 여행 > 국내여행 > 전국  
 I S B N 978-89-6000-870-0 13980

네서BOOKS  
 (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4-2 전화 330-5500(대) | 팩스 330-5555  
 (내용 문의) 편집부 양정희 | yjh@nexusbook.com | 330-5516

어촌 View Point 100 ⑨ 전북 고창 하전

어촌 갯벌체험의 대명사  
 하전마을,  
 그 갯벌 속으로 가보자

하전마을의 갯벌은 12월의  
 그 갯벌은 비가 오면  
 구름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전 갯벌체험장 ▶

- CANON EOS 5D MARK II
- 초점거리 35mm
- 5월21일 pm 7:23
- 촬영모드 AV / ISO100
- 셔터스피드 1/160초
- 조리개 F14
- 화이트밸런스 Auto



갯벌체험장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하전갯벌. 하전갯벌은 지금 전국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로 손꼽는다. 그러나 이곳 갯벌은 여느 서해안 갯벌과는 달리 마을공동어업권에 비해 개인 어업권이 유난히 많다. 개인면허가 많은 것은 하전 갯벌의 특성 때문이다. 하전갯벌은 자연적으로 바지락치패가 생성되지 않는다. 종패를 가져다 뿌려야 된다. 절로 종패가 생기지 않으니 쓸모없는 갯벌로 여겨 그냥 내버려두었는데, 몇몇 어업인들이 외지에서 바지락 종패를 갖다 뿌리면서 갯벌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이후 개인면허를 내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전갯벌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은 대부분 어업인들이 치패를 갖다 뿌리고 관리해서 거두어들이는 힘든 땀의 대가다.

하전갯벌은 무척 넓다. 그 넓고 질퍽거리는 갯벌을 걸어서 다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전마을에 배보다 경운기가 더 많은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또 경운기는 갯벌에서 캐낸 바지락의 운반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다. 이들 경운기가 사진의 소재도 된다. 갯벌에 줄지어 들어가거나 나오는 경운기들의 행렬이 마침 일몰이라면 멋진 풍경사진이 될 것이다. 갯벌체험 사진은 원경과 근경을 함께 잡아야 원근감이 사는 사진이 되어 보기가 좋다. 매크로 렌즈를 이용해 캐낸 조개의 접사사진도 좋고, 갈퀴로 쉼 쉼을 막 꺼내는 모습 등을 찍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여기도 좋아요! 고창읍에 가면 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고창읍성이 있다. 모양성이라고도 부르는 고창읍성은 사진가들이 많이 찾는 촬영장소다. 자연석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읍성으로서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 좋은 볼거리가 된다.

신나게 즐겁게! 갯벌에서 긴 시간을 보냈으면 이제 백사장이 있는 해변에도 한번 가 볼일이다. 하전에서 가장 가까운 백사장은 30분 거리에 있는 구시포 해변이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한 바닷물에 식혀보면 어떨까.

배꼽시계 꼬르륵! 고창하면 빠트릴 수 없는 것이 풍천장이 숯불구이다. 선운산 어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인천강 지역을 풍천이라 하는데, 이곳에서 잡히는 장어를 풍천장어라 한다. 양념장을 발라 구워놓은 풍천장어는 맛만큼이나 영양소도 풍부해 보양식으로 그만이다. 하전에서 풍천장어 맛을 보려면 인근에 있는 대영수산(010-7207-5704)을 찾으면 된다.

쉬어 가고 싶을때! 하전마을에 있는 갯벌이마을(010-9877-9771)에서 가정식 민박을 하거나 선운산유스호스텔(063-561-3333)을 이용하면 된다.



▲ 갯벌트랙터에 탑승하는 체험객



▲ 고창읍성



▲ 풍천 장어구이